

## 《黃帝八十一難經》중 脈學條에 관한 研究(II)

朴載正·尹暢烈\*

### I. 緒論

一般的으로 東醫理論의 基本書로서 《內經》, 《難經》, 《神農本草經》, 《傷寒論》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東洋醫學의 鼻祖는 《內·難》 二經이요, 醫學의 理·法·方·藥을 集大成한 것은 《傷寒論》으로 이를 醫學의 三典이라 한다.<sup>1)</sup>

《難經》은 《黃帝內經》과 其他의 古醫經類에서 가장 難解하고 核心的인 主題를 가려, 이것의 問答를 假說하여 醫難을 解析하는 方式으로 編纂된 것으로<sup>2)</sup> 《黃帝內經》으로 代表되는 東洋醫學의 古典的, 原典的인 思想을 《傷寒論》으로 代表되는 臨床活用書들의 哲學的 根幹이 되게 하였고, 오늘날 韓醫學이 臨床治療醫學으로서 人類에 貢獻할 수 있게 한 崇高한 價値가 있는 典籍인 것이다.<sup>3)</sup> 《難經》의 作者와 完成時期는 오늘에 와서도 統一된 意見과 結論은 아직 없다. 張仲景의 《傷寒雜病論》序文에 이미 《八十一難》이라는 名稱이 言及되어 있기 때문에<sup>4)</sup> 著作年代에 있어서 一般的인 考證은 漢代以前으로 알려져 있으며, 本書의 作者에 對해서 歷代로 세가지 見解가 있다. 첫째로, 黃帝가 著作했다는 見解이다.<sup>5)</sup> 《帝王世紀》를 인용한 《太平御覽》에 “黃帝有熊氏가 雷公과 岐伯에게 下命하여 經脈을 論하게 하고 81가지의 難解한 것을 質問하여 알게 된 것이 《難經》”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僞託書라는 見解로서 이는 本書의 文字的인 面에서 해아릴 수 있는데 예컨대 《難經》十四難<sup>6)</sup>에 “脈有根本, 人有元氣, 故知不死”라 하였는데 “元氣”라는 用語는 董仲舒의 《春秋繁露》와 楊雄의 《解嘲》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글자로 東漢에 이르러서 많이 쓰여졌다.<sup>7)</sup> 또한 第十九難<sup>8)</sup>에 “男子生于寅, 寅爲木, 陽也. 女子生于申, 申爲金, 陰也”라 하였는데, 《說問》包字注의 高誘의 《淮南子》注, 《離騷章句》에 이러한 說法이 있다.<sup>9)</sup> 이러한 文獻의 考證으

로 東漢時代로 推定할 수 있고, 後漢 長沙太守를 지낸 張仲景의 《傷寒雜病論》自序와 《隋書·經籍志》에 《難經》에 對한 記錄이 있으므로 東漢以前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以上의 難經著作에 對한 諸家의 見解를 綜合하여 考察해 볼때 以後 여러 世代 여러 사람의 尙大한 資料와 思想이 集大成되어 오늘날 《難經》의 醫學史的 價値가 높게 評價되고 《難經》의 指導的 位置를 確固히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秦越人의 著者라는 見解가 있다. 大多數의 註釋家들은 秦越人이 著作한 것으로 알고 있다. 唐代의 楊玄操는 처음으로 《難經》을 秦越人 扁鵲의 著作이라고 主張하였는데<sup>10)</sup> “黃帝八十一難經者, 斯乃渤海秦越人所作也”라 하였고, 《舊唐書·經籍志》에도 “黃帝八十一難經一卷, 秦越人撰”<sup>11)</sup>이라 하여 楊玄操와 같이 秦越人 所作說을 主張하였다. 이후 수많은 醫家들이 이 說을 主張하였다. 秦越人은 紀元前 407年~紀元前 310年 정도까지의 大略 紀元前 5世紀 前後 사람이다. 渤海의 鄭郡(지금의 河北省 任邱縣)人이며 當時의 診斷法인 望聞問切等의 方法을 總結하여 臨床實際에 應用함이 뛰어났으며 특히 脈診에 精通하여 中國脈學의 創造者로 推崇

- 2)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編,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32.
- 3)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 대전, 대전대학교 1993, p.1.
- 4)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20.
- 5)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正中書局, 1983, p.9.
- 6)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78, p.32.
- 7) 難經譯釋, 臺北, 昭人出版社, p.2.
- 8)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78, p.50.
- 9) 難經譯釋, 臺北, 昭人出版社, p.2.
- 10) 甄志亞, 中國醫學史,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26.
- 11) 史仲序, 中國醫學史, 臺北, 國立編譯館出版, p.27.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教室

1)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 대전, 대전대학교 1993, p.1.

되어 古代 史家로 有名한 司馬遷도 “天下至今言脈者，由扁鵲”이라 하였으며<sup>12)</sup> 사람들이 그를 軒輊時代의 名醫인 扁鵲에 比喻하여 “扁鵲”이라 한 것이다.<sup>13)</sup>

難經의 名稱에 對해서 대체로 세가지의 見解가 있다. 첫번째는 “難”을 論難하다는 뜻으로 解析해야 한다는 것이니 皇甫謐의 《帝王世紀》<sup>14)</sup>에서, “黃帝命雷公岐伯，論經脈，旁通問難八十一難爲難經”이라 한 것과 같다. 둘째로 “難”을 어렵다고 解析한 것이다. 黎泰辰은 “難이라고 하는 것은 人體의 五臟六腑가 內部에 숨겨져 있어 邪氣가 侵犯하게 되면 잘 헤아려 알지 않으면 안되므로 오직 脈理로 터득해야 하니 이와 類似한 것이 아니겠는가? 脈을 짚는데 二十菽重으로 누르기도 하고 또는 수레뿔개와 같이 느슨하게 누르기도 하며 닭깃을 만지듯 눌러서 內外의 疾病을 살피서 아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겠는가”라고 하는 것과 같다.<sup>15)</sup> 셋째로 “難”을 疑心스럽고 判斷하기 어려운 것을 解說한다는 뜻으로 解析해야 한다는 뜻이다. 徐靈胎는 “《素問》과 《靈樞》의 簡單하면서도 深奧한 뜻을 실마리만 끌어내고 發明하지 않은 것을 問答하는 말로써 그 뜻을 暢達하게 하였다.”고 한 것과 같다.<sup>16)</sup>

難經이라는 一書에는 歷代 註釋家들이 數十餘派가 되는데 孫權이 세운 吳代에는 呂廣이 註釋한 것, 唐代의 初期에는 楊玄操의 補注本, 宋代에는 丁德用, 虞庶, 周仲立, 龐安時 등이 있었으며, 金代에는 紀天錫, 張元素 등이 있고, 元代에는 袁淳甫, 謝堅白, 滑伯仁 등이 있으며, 明代에는 張天成, 虞天民 등이 있고, 清代에는 徐靈胎, 丁履中, 黃坤載 등이 있으며, 近代의 註釋家들도 적지 않다.

本 論文은 譯釋의 方法을 選擇하여 論하였고, 滑伯仁의 《難經本義》를 根據로 삼고 其他書를 參考하였다. 章의 分類로는 吳澄의 方法으로 하여 一難에서 二十二難의 脈學, 二十三難에서 二十九難의 競落, 三十難에서 四十七難의 臟腑, 四十八難에서 六十一難의 疾病, 六十二難에서 六十八難의 俞穴, 六十九難에서 八十一難의 鍼法으로 採擇하고 있다. 그 內容으로는 生理, 病理, 診斷, 治療等 各方面을 包括하고 있으며 歷代醫家들은 모두 매우 훌륭한 評價를 하고 있다. 滑伯仁은 그의 《難經本義》序文에 內容이 豐富하고 理論이 正確하

다고 매우 칭찬하였고, 後學들의 研究心を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難經》은 黃帝의 《素問》, 《靈樞》의 要旨를 問答體로 그 뜻을 설명하였는데 그 가운데 營衛度數, 尺寸部位, 陰陽五行, 臟腑內外, 脈法, 病態와 經絡流注, 鍼刺俞穴에까지 두루 간략한 말로써 그 뜻을 廣範圍하게 說明하여 옛 聖人의 뜻을 擴充하여 後賢을 啓發하였으므로 百姓을 念慮하는 者에게는 매우 切實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難經의 理論은 比較的 完備하고 또 여러 面으로 獨創的인 意味가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方法으로 說明할 수 있겠다. 우선 脈盡方法에 對해서는 一難에서 二十二難까지를 說明하는 것으로서 比較的 分明한 系統性이 있으며, 特히 第一難의 寸口에서만 脈을 짚는 方法은 創造的인 方法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數千年동안 臨床에 應用되어 왔다. 두번째로 生理方面으로는 第二十六難의 十五絡에 對한 明白한 說明에서 陽絡은 陽蹻絡, 陰絡은 陰蹻絡으로 提示하고 있는데 이는 絡脈上으로 創造的인 見解인 것이며 治療에 있어서 相當한 影響을 주고 있다. 經絡學說面에서 奇經八脈의 順行方向과 起止點을 詳細히 說明하였을 뿐만 아니라 奇經八脈과 十二經脈의 生理機能上 差異點을 드러나게 하였고, 《內經》의 未備點을 補充하였다. 세번째로 病理的 側面에서 第五十五難의 積聚概念과 五十六難의 五臟積의 概念은 모두 그 證狀, 病理, 疾病過程의 傳變過程을 全般的으로 說明한 것이다. 네번째로 治療方面으로는 補瀉面에서 두드러진 것은 內臟의 복잡한 關係에 맞추어 “瀉南補北”의 法則(第七十六難)을 提示하였다. 또한 第七十七難에서 “유능한 醫師는 發病前에 다스리고 發病前에 다스린다는 것은 肝의 病이 나타나면 肝은 脾로 傳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脾氣를 實하게 하여야 肝

13) 陳居森, 中國歷代名醫錄, 臺北, 現代中醫藥學院, 1977, p.5.

14) 謝利恒, 中國醫學原流論, 臺北, 進學書局, 1970, p.5.

15)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正中書局, 1983, p.8.

“世傳皇帝八十一難經 謂之難者 得非人之五臟六腑隱於內 爲邪所于 不可測之 唯以脈理究其 彷彿邪 若脈有重二十菽者 又有如按車蓋 而若循 雞羽者 復考內外之證參校之 不其難乎”

16) 徐靈胎, 國譯徐靈胎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難經論, p.180.

12) 漢醫學大辭典(醫史編纂編,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p.322.

의 邪氣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論點에서 張仲景의 《金匱要略·臟腑經絡先後病脈證》은 이 理論을 繼承하고 進一步하여 明白히 說明하였으며 後世醫學에서도 治療上 豫防醫學的 措置로 쓰여 왔다.

本 論文은 脈學篇에서 第十八難의 “脈法三部와 臟腑經脈의 配合 및 積聚癩疾의 脈象”과 第十九難의 “男女의 正常脈과 反常脈에 關하여 論함”을 中心으로 《內經》의 論議를 뛰어넘는 獨創性<sup>17)</sup>을 바탕으로 體系의 研究하고자 함이며, 이에 두 번 檢査과정으로서 이 論考를 發表하는 바이다.

## Ⅱ. 研究 方法

本文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내용을 비교, 연구하기 위하여 各 難別로 原文에 縣吐를 하고 原文에 대한 解釋을 하였으며, 校勘 字句解를 가하였고 各家注를 인용하여 縣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各 難에 關한 考察整理를 하였다.

가. 題目은 《難經校釋》에 依據하여 달았다.

나. 原文은 滑壽의 《難經本義》를 基準으로 삼았다.

다. 出處는 《內經》의 原文을 爲主로 밝히되 《內經》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출처없음’이라고 하였다.

라. 縣吐는 전래의 方式을 원칙으로 하였다.

마. 解釋은 原文의 縣吐에 充實하도록 直譯을 위주로 하되 各 注釋들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위주로 하여 약간의 意譯을 하였다.

바. 校勘은 各 引用文獻 중에서 原文의 글자가 다른 것을 조사하였다.

사. 字句解는 原文 중에서 難解한 부분에 대하여 各 注家들의 의견과 各 解說書들의 意見들을 위주로 비교 說明하였다.

아. 各家注는 아래에 제시할 引用文獻의 注釋을 시대순으로 縣吐하여 제시하였고, 縣吐 이외에 注釋 內容의 이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脚注로 처리하여 제시하였다. 단 中國의 문헌을 앞에 제시한 후에 日本의 文獻들을 제시하였다.

자. 考察은 各家注의 內容들을 토대로 各 難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內容들에 대해서 총괄하여

정리하였다.

차. 考察 中에 內容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引用文獻에 대한 說明과 各家에 대한 해설이나 注釋의 보충설명은 脚注로 처리하였다. (各家에 대한 說明은 《難經本義》의 《本義引用諸家姓名》을 참고하였다.)

카. 本 論文에 사용한 부호는 引用文獻은 《 》, 校勘은 〈 〉, 字句解는 단어와 각주로, 各家注는 [ ], 脚注는 )로 표시하였다.

타. 強調해야 할 文句가 句인 경우에는 ‘ ’로 強調하였고 節인 경우는 “ ”로 強調하였다.

本 論考에 參考한 《難經》의 注解書는 아래의 도표와 같다. 各 注釋書의 시대와 순서는 千柄泰의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중 “難經의 注解書 目錄”<sup>18)</sup>을 參照하였다.

《參考注解書》

時代	著 者	書 籍	備 考
元	滑壽	難經本義	이하 本義라고 한다.
明	王九思	難經集注	이하 集注라고 한다.
	張世賢	校訂圖註難經	이하 圖註라고 한다.
清	徐大椿	難經經釋	이하 經釋이라 한다.
	黃元御	難經懸解	이하 懸解라고 한다.
	丁錦	古本難經闡注	이하 闡注라고 한다.
	葉霖	難經正義	이하 正義라고 한다.
民國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이하 匯海라고 한다.
中國	南京中醫學院	難經譯釋	이하 譯釋이라 한다.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이하 校釋이라 한다.
	凌耀星	難經校注	이하 校注라고 한다.
	王洪圖	難經	이하 中譯이라 한다.
臺灣	唐湘清	難經今釋	이하 今釋이라 한다.
	黃維三	難經發揮	이하 發揮라고 한다.
日本	丹波元胤	難經疏證	이하 疏證이라 한다.
	滕萬卿	難經古義	이하 古義라고 한다.
	加藤宗博	盧經衰肢	이하 衰肢이라 한다.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이하 研究라고 한다.

## Ⅲ. 研究 內容

### 【原文】

第十八難(脈法三部와 臟腑經脈의 配合 및 積聚癩疾의 脈象)

十八難曰<sup>(1)</sup> 脈有三部<sup>(2)</sup> 하고 部有四經<sup>(3)</sup> 하니 手有太陰陽明<sup>(4)</sup> 하고 足有太陰少陰<sup>(5)</sup> 하여 爲上下部<sup>(6)</sup> 는 何謂也<sup>(7)</sup> 오 (有圖)

17)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 대전, 대전대학교 1993. p.3.

18)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 대전, 대전대학교, 1993, pp.40-42.

然이나 手太陰陽明은 金也<sup>(8)</sup>요 足少陰太陽은 水也<sup>(9)</sup>니 金生水<sup>(10)</sup>하야 水流下行而不能上<sup>(11)</sup>이라 故로 在下部也<sup>(12)</sup>오

足厥陰少陽<sup>(13)</sup>은 木也<sup>(14)</sup>니 生手太陽少陰火<sup>(15)</sup>하야 火炎上行 而不能下<sup>(16)</sup>라 故로 爲上部<sup>(17)</sup>요

手心主少陽火<sup>(18)</sup>는 生足太陰陽明土<sup>(19)</sup>하야 土主中宮<sup>(20)</sup>이라 故로 在中部也<sup>(21)</sup>니

此는 皆五行子母에 更相生養者也<sup>(22)</sup>라

脈有三部九候<sup>(23)</sup>하니 各何主之<sup>(24)</sup>오

然이나 三部者<sup>(25)</sup>는 寸關尺也<sup>(26)</sup>요 九候者<sup>(27)</sup>는 浮中沈也<sup>(28)</sup>라

上部法天<sup>(29)</sup>하야 主胸以上至頭之有疾也<sup>(30)</sup>오

中部法人<sup>(31)</sup>하야 主膈以下至臍之有疾也<sup>(32)</sup>오

下部法地<sup>(33)</sup>하야 主臍以下至足之有疾也<sup>(34)</sup>니

審而刺之者也<sup>(35)</sup>라

人病有沈滯久積聚<sup>(36)</sup>를 可切脈而知之耶<sup>(37)</sup>아

然이나 診<sup>(1)(38)</sup>在右脇有積氣<sup>(39)</sup>면 得肺脈結<sup>(40)</sup>이나 脈結甚則積甚<sup>(41)</sup>하고 結微則氣微<sup>(42)</sup>라

診不得肺脈<sup>(43)</sup>이나 而右脇有積氣者는 何也<sup>(44)</sup>오

然이나 肺脈이 雖不見<sup>(45)</sup>이나 右手脈當<sup>(2)(46)</sup>沈伏<sup>(47)</sup>이라

其外痼疾도 同法耶<sup>(48)</sup>아 將異也<sup>(49)</sup>라

然이나 結者는 脈<sup>(3)(50)</sup>來去時一止<sup>(51)</sup>하야 無常數<sup>(52)</sup>를 名曰結也<sup>(53)</sup>요 伏者는 脈行筋下也<sup>(54)</sup>요 浮者는 脈在肉上行也<sup>(55)</sup>니 左右表裏<sup>(56)</sup>로 法皆如此<sup>(57)</sup>라

假令脈結伏者<sup>(58)</sup>가 內無積聚이고 脈浮結者가 外無痼疾<sup>(59)</sup>이고 有積聚<sup>(60)</sup>에 脈不結伏<sup>(61)</sup>이고 有痼疾<sup>(62)</sup>에 脈不浮結<sup>(63)</sup>이면 爲脈不應病<sup>(64)</sup>하고 病不應脈<sup>(65)</sup>하야 是爲死病也<sup>(66)</sup>라

【解釋】

第18難

十八難에 이르기를, 診脈의 部位에는 寸關尺의 三部가 있고, 每 部에는 各기 네 經이 있다. 예컨대 手經에는 太陰經과 陽明經이 있으며, 足經에는 太陰經과 少陰經이 있어서 위의 寸部와 아래의 尺部로 나뉘어져 서로 連結된다. 왜 그렇게 서로 連結되고 配屬되는가?

답하기를, 手太陰肺經과 手陽明大腸經은 五行의 으로 金에 屬하고, 足少陰腎經과 足太陽膀胱經은 五行의 으로 水에 屬한다. 金은 水를 낳고 水의 性質은 潤下하므로 위로 올라 가지 못하여 下部에 있게 되는 것이다. 足厥陰肝經과 足少陽膽經은 五行의 으로 木에 屬하기 때문에 火에 屬하는 手太陽小腸經과 手少陰心經을 낳는다. 火의 性質은 炎上

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 가지 못하여 上部에 있게 되는 것이다. 手厥陰心包經과 手少陽三焦經은 五行의 으로 火에 屬하여 土에 屬하는 足太陰脾經과 足陽明胃經을 낳으며, 土는 中宮에 居하므로 中部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모두 五行의 子母가 서로 生養하는 原則에 의한 것이다.

脈에는 三部九候가 있는데, 各各 어떠한 疾病을 主觀하는가?

답하기를, 三部는 寸關尺이다. 九候는 寸關尺 三部 各各의 浮中沈 三候를 말한다. 上部는 寸部로 天의 모습을 본뜬 것이고, 胸部위로 頭部까지의 疾病을 主管한다. 中部는 關部로 사람의 모습을 본뜬 것이고, 橫膈膜에서 배꼽까지의 疾病을 主管한다. 下部는 尺部로 地의 모습을 본뜬 것이고, 배꼽아래로 足部까지의 疾病을 主管한다. 반드시 慎重하게 各部位의 脈象을 잘 살펴서 刺針하여야 한다.

體內에 潛伏해있거나 或은 오랫동안 鬱滯되어 發生한 積聚도 診脈하여 알아낼 수 있는가?

답하기를, 患者를 診察하는데, 右脇部에 積聚기 운이 있으면 肺脈이 結脈으로 나타나고, 結脈이 甚하면 積聚 역시 甚한 것이며, 結脈이 微弱하면 積聚 역시 輕微한 것이다.

肺脈의 部位에서 結脈의 脈象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右脇部에 積氣가 있는 것은 왜인가?

답하기를, 肺脈의 部位에 비록 結脈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오른 쪽의 脈象은 반드시 沈伏하다.

外部의 고치기 어려운 痼疾病도 같은 診脈法을 活用하는가? 아니면 다른 診脈法을 活用하는가?

답하기를, 結脈은 脈搏이 때로 한번씩 멈추는 것인데, 規則的이지는 않은 것을 結脈이라고 한다. 伏脈은 脈이 筋아래로 흐르는 것이다. 浮脈은 脈이 肌肉의 위로 흐르는 것이다. 疾病이 左右表裏 어는 곳에 있던지 모두 같은 診脈法을 活用하는 것이다.

假令 脈象이 結伏하면 體內에 積聚가 없는 것이며, 脈이 浮結하면 體表에 痼疾病이 없는 것이다. 또 體內에 積聚가 있더라도 脈象이 結伏하지 않으며, 體表에 痼疾이 있더라도 脈象이 浮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脈象이 病에 相應하지 않거나 혹은 病이 脈象과 相應하지 않는 것으로 모두 죽게 된다.

【出處】

【校勘】

- 〈1〉診: 《經釋》《校釋》에는 '診病'으로 되어 있다. '病'은 원래는 없었으나 明本《難經》에 보충되었다.
- 〈2〉當: 《匯海》에는 '當'이 빠져있다.
- 〈3〉結者脈: 《匯海》에는 '結脈者'로 되어 있다.
- 〈4〉爲: 《匯海》에는 '而爲'로 되어 있다.

【字句解】

部有四經: 部는 寸, 關, 尺 三部를 가르킨다.<sup>19)</sup>  
 上下部: 上部는 寸部를 가르키고 下部는 尺部를 가르키는 것이다.<sup>20)21)</sup>  
 手心主: 手厥陰心包絡經을 의미한다.<sup>22)</sup>  
 審而刺之: '刺'는 깊게 刺鍼하여 그 豫候를 살핀다는 뜻이다. '審而刺之'는 病情과 證候에 對한 診察시 注意깊게 살핀다는 意味이다.<sup>23)</sup>  
 沈滯: 體內에 깊이 숨어 積滯하는 病을 가리킨다.<sup>24)</sup>  
 痼疾: 오래 治療하여도 낫지않고 比較的 頑固한 慢性疾患의 疾病을 일컫는다.<sup>25)</sup>  
 徐大椿曰 '痼疾은 凡肌肉筋骨間에 有不去之病으로 皆是이라'하여 그 病의 特徵을 說明하였다.<sup>26)27)</sup>

【各家注】

《本義》28)

[1-7] 此篇은 立問之意 | 謂人十二經脈이라 凡有三部한데 每部之中에 有四經하니 今手有太陰陽明하고 足有太陰少陰하니 爲上下部何也

蓋三部者는 以寸關尺上中下也라 四經者는 寸關尺兩梁相比니 則每部各有四經矣라 手之太陰陽明하고 足之太陰少陰하니 爲上下部者는 肺居右寸하고 腎居左尺하고 循環上資하여 肺高腎下니 母子之相望也라

經云에 藏眞高於肺하고 藏眞下於腎是也라

[8-22] 手太陰陽明金은 下生足太陰少陰水고 水性下하니 故로 居下部라

足少陰太陽水는 生足厥陰少陽木하고 木生手少陰太陽火는 及手心主火요 火炎上行은 是爲上部라

火生足太陰陽明土하니 土居中部하고 復生肺金이니 此五行子母經相生養者也라

此蓋因手太陰陽明과 足太陰少陰은 爲上下部道니 推廣五行相生之大하야 (越人亦以五藏生成之後因에 其部分之高下而推言之니 非謂未生之前이니 必待如是而後生成也라) 而又演爲三部之說은 卽四難所謂 心肺俱浮하고 腎肝俱沈하고 脾者中州之意니 但彼直以藏言이면 此以經言而藏府兼之라

以上問答明經은 此下二節에 俱不相蒙이니 疑它 經錯簡이라

[23-35] 謝氏曰 此一節은 當是十六難中答辭니 錯簡在此라 而剩出脈有三部九候에 各何主之十字니 라

審而刺之는 紀氏云 欲診脈動而中病이니 不可不 審인 故로 曰審而刺之라

刺者는 言其動而中也라

陳萬年傳曰 刺候는 謂中其候라하니 與此義同인 데 或曰 刺는 鍼刺也니 謂審其部而鍼刺之라

[36-37] 此下問答은 亦未詳所屬한데 或曰 當是十七難中이나 或連年月不已答辭라

[38-42] 結은 爲積聚之脈이니 肺脈見結이면 知右脇積氣니 右脇肺部也라 積氣有微甚이면 脈從而應之라

[43-47] 肺脈雖不見結이면 右手脈當沈伏이고 沈伏亦積聚脈이니 右手所以候裏也라

[48-49] 此承上文을 復問하면 外之痼疾과 與內之積聚는 法將同異라

[50-57] 結爲積聚고 伏脈行筋下主裏하고 浮脈行肉上主表니 所以異也라 前舉右脇爲例니 故로 此云 左右同法이라

20) 南京中醫學院校釋,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46

21)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p.39

22) 南京中醫學院校釋,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46

23)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p.36

24)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p.40

25) 南京中醫學院校釋,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47

26)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p.40

27) 徐大椿,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p.15

28) 清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p.53-P.54.

19) 南京中醫學院校釋,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46

〔58-66〕 有是脈이면 無是病이요 有是病이면 無是脈이니 脈病不相應이니 故로 爲死病也라

〈集注〉29)

〔1-12〕 丁曰 夫脈有三部九候者는 寸關尺也라 若合兩手言之면 卽六部也라 每部之內에 各有二經이요 六部之內면 合爲十二經이라 今此云 四經者는 是謂手太陽陽明이요 與足太陽少陰이니 此四經者는 法水火之性이라 各有綱紀而不能變通上下니 餘八經은 在手生足이요 在足生手니 所以經言에 部有四也라 是右手寸口는 肺與大腸應하고 金生左尺水也라 足太陽少陰水는 其性潤下니 故로 不能上生於手요 而生左는 足厥陰少陰木이라 此二部는 皆是足之經紀니 所以言在下部也라 是 | 로 左尺水는 生左關木이라

楊曰 手太陰은 肺脈也라 肺爲諸藏上이니 蓋其治在右方이라 故로 在右手上部也라 手陽明大腸脈은 是肺之府니 故로 隨肺居上部焉이라 足少陰은 腎脈이니 腎爲水며 肺之子요 水流趣於腎이요 又最居於下니 故로 爲左手下部也라 足太陽膀胱은 爲腎之府라 故로 隨腎居下部焉이라 經言에 脈有三部하고 部有四經者는 謂總兩手而言之也라 兩手는 各有三部하고 部는 各有二經이니 兩手上部合四也라 中下二部는 亦復如此라 三四十二則 十二經也라 肺金居上이면 而下生腎水이니 故로 肺腎在左右手에 上下部也라

〔13-17〕 丁曰 手太陽少陰은 應左寸君火요 火上<sup>30)</sup>炎上不能下니 生足而生手心主少陽火라 是生右尺相火也라

楊曰 足厥陰은 肝脈也라 肝治在左方이니 故로 爲左手之下部요 足少陽膽者는 爲肝之府니 故로 隨肝居下部也라 手太陽小腸脈은 爲心之府라 故로 隨心居上部焉이라

〔18-21〕 丁曰 是는 相火에 應하고 其灰火也라 中部者는 右關也니 生于寸金也라

楊曰 手心主는 心包絡脈也라 手少陽은 三焦脈也라 故로 合爲左手中部니라 足太陰은 脾脈也라 足陽明은 胃脈也라 故로 合爲右手中部니라 此經은 作如此分別인데 若依脈經配二部이면 又如此不同也라

虞曰 經言에 手心主少陽火는 生足太陰陽明土요 土主中宮이니 故로 在右手中部는 惟只言火生土之意이요 不言컨데 手心主少陽은 在左手中部에 惟只

取其相生言之也니라 今明三部相生之意는 如此니라 右手尺中少陽火는 生關上陽明土요 關上陽明土는 卻生寸口太陰金이요 寸口太陰金은 卻生左手尺中少陰水요 左尺中少陰水는 卻生左手關上厥陰木이요 關上厥陰木은 卻生左手寸口少陰火요 卻又別心主火니 故로 心主는 生足太陰陽明土也라 此는 乃五行相生之意耳니이다 又足厥陰과 與足太陰은 何以居於左右兩手關部中胃脾한데 太陰脾脈居於中洲면 乃在右手關上也라 又足厥陰은 木이요 木者는 根生於地하고 枝葉長於天하니 亦陰陽共焉이라 故로 亦在左中部也라

〔22〕 丁曰 言此는 皆五行更相生養者라하니 是는 謂右寸金生左尺水요 水生左關木이요 木生左寸君火요 君火生右尺相火요 相火生右關土요 而後生右寸金이라 故로 言컨데 子母更相生養者也니이다

〔23-28〕 丁曰 前順五行而言之에 生養卽逆三部而反到니 所以經別問各何所主也라

楊曰 寸口는 陽也요 關은 中部也요 尺은 中陰也니 此三部는 各有浮中沈三候요 三三九候也라 故로 曰九라 浮爲陽이요 沈爲陰이요 中者는 胃氣也라

虞曰 一部之中에 有三候한데 浮者는 爲府요 沈者는 爲藏이요 中者는 乃是中焦之脈也라 假令 寸口 浮면 爲府요 沈은 爲藏이요 中은 爲中焦니 皆做此用之라

〔29-30〕 丁曰 兩手寸口는 皆爲上部라 卽寸外는 主頭하고 寸內는 主胸中하니 是 | 로 頭皆一指下前後는 言病左右同法也라

楊曰 所謂 自膈以上은 爲上焦也라

〔31-32〕 丁曰 言左右兩關也에 第二指半指以前은 言膈下半指之後니 主齊上左右同이라

楊曰 所謂 自膈以下는 爲中焦也라

〔33-34〕 丁曰 下部左右兩尺에 第三指半指之前은 主齊下有疾이며 半指之後는 以候至足之有疾이라

楊曰 所謂自齊以下至足은 爲下焦也라

〔35〕 丁曰 刺字는 當作次第之次요 此는 是審三部各有內外主從頭至足之有疾也라 故로 知刺字는 傳文誤也라

楊曰 用針者는 必當審詳三部九候하고 病之所在 然后는 各依其源而刺之也라

〔36-47〕 丁曰 病久면 積聚인데 可切脈而知之者는 五臟六腑皆有積聚나 今云한데 右脇有積氣는 當肺脈見이나 如是脈不見亦沈伏이라 詳經之意는

29)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 p.110-p.120.

30) 上字는 마땅히 '性'으로 되어야 할 것 같다.

脈浮行於肉上하고 脈沈行於筋下하니 其浮行於肉上而無常數而止者는 名曰結也라 其沈行於筋下時上名曰伏也라 伏者는 藏病積也요 浮結者는 府病聚也라 兩手三部는 各有浮沈結伏而言病也니 今經引肺脈一經於此言之也니이다

楊曰 往來緩而時一止復來면 謂之結也요 脈結甚者는 是診脈之狀也요 結甚者는 此結訓積이나 猶言脈結甚則積甚이요 脈積微則積微其言積隱也니이다

虞曰 結脈은 主塊積하고 其脈動而中止小數有還反動이니 故로 曰結也라 其積之大小는 隨診言之也니이다

楊曰 診雖不得肺脈하나 浮短而濇하고 但右手脈當沈伏即右脇有積氣矣니이다 肺治在右也요 極重指著骨乃得인 故로 謂伏脈也라

[48-66] 丁曰 人心有所思慕면 脈亦結이요 心無所思內外無病이니 其脈伏結此者는 形不病而脈病이라 故로 知死矣니이다

楊曰 脈與病不相應이면 爲逆者難治이니 故로 曰是死病也라

[1-66] 舊經注云에 手心主는 心包絡脈也요 手少陽은 三焦脈也니 故로 合爲左手中部하고 足太陰은 脾脈也요 足陽明은 胃脈也니 故로 合爲右手中部하니 此經은 作如此分別이니 若依脈經配三部하나 又與此不同也니이다

[1-66] 舊經니 有此前注 牴牾具列이니 此는 圖以正其文이라 楊氏曰 手心主는 心包絡脈이요 手少陽은 三焦脈也이 故로 合爲左手上部하고 足太陰은 脾脈也요 足陽明은 胃脈也니 故로 合爲右手中部하니 此經은 作如此分別이니 若依脈經配三部하나 又與此不同니이다 夫此法은 楊氏不能明其理 하니 故로 言不同也라 是師將三部反倒配合五行六氣而言之면 師謂此寸尺反倒요 又問三部各何所主하니 經云 上部法天하니 主胸以上至頭有疾이요 中部法人이니 主膈下至齊上有疾이요 下部法地니 主劑以下至足有疾이라 故로 云審而次之者也라 又王叔和는 將自左寸逆行言之曰 左는 心小腸肝膽腎이요 右는 肺大腸脾胃命이니 女人反此하여 背看之尺脈은 第三同斷病이라 蓋兩尺反倒同이면 主齊以下至足有疾하니 故로 扁鵲云에 審而次之하고 王叔和云에 用心子細須尋趁이라

〈圖註〉<sup>31)</sup>

[1-7] 三部者는 合兩手寸關尺而言也요 每部之

中에 俱有四經이요 且如寸部에 左則心與小腸이요 右則肺與大腸이니 三部共十二經也니이다 上은 寸部也요 下은 尺部也라

[8-22] 手太陰은 肺經也요 手陽明은 大腸經也요 大腸은 肺之腑니 二者屬金이라 足少陰은 腎經也요 足太陽은 膀胱經也요 膀胱은 乃腎之府니 二者屬木<sup>32)</sup>이라 金生水요 水之性은 下而不上하니 故로 流下行而不能上하니 親於肺金하나 水生於金而性不同於金이라 故로 金居右上部而水居左下部也라 水生木이요 木者는 足厥陰肝經也요 足少陽膽經也니 木得水而生하고 絕水而死니 故로 水木之部相連而木部居於左關이라 木生火요 火者는 手太陽小腸經也요 手少陰心也니 火之性은 炎上而不下 이니 故로 爲左手之上部하니이다 手之心主는 包絡이요 少陽三焦相火也니 俱有名而無實이니 寄位於右尺이라 火生土요 土者는 足太陰脾經也요 足陽明胃經也니 土主中宮이니 故로 在中部而居於右關이니이다 金生水요 水生木이요 木生火요 火生土요 土復生金이니 此皆五行母子요 子爲母而復生子니 子母更相生養者也니이다

[23-35] 浮는 陽也요 沈은 陰也요 中은 陰陽之間也라 寸關尺三部俱有浮中沈三候이니 三而三之合成九也라 此는 與素問三部九候篇小異인데 素問에 三部는 人身上中下三停也요 九候는 分九處以候九臟也니 此則總括三停九處於兩手寸關尺니이다 寸爲上部法天하야 主胸以上至頭之有疾하고 關爲中部法人하야 主胸下至臍之有疾하고 尺爲下部法地하야 主臍下至足之有疾이라 本經은 言每部三候浮中沈之三等이나 素問은 言每部三候天地人之三處니이다 越人之見은 得于素問中來요 其所候雖有不同이라 其主病則一審而刺之者는 審其脈而刺其病이니 勿令上中下諸經之有錯也라 潔古가 云隨其上下審其部位而刺之하니 手之經은 瀉陽補陰하고 足之經은 瀉陰補陽하며 中部法人는 調陰陽하여 臨時致宜라 紀氏曰 審而刺之者는 此篇은 上下不說用針刀訊이요 楊玄操高承德은 以刺解針이니 且素問本意는 專說用針以刺解針하니 猶爲得理하니라 大抵針藥은 一理이니 雖云用針은 醫藥亦同이라

[36-66] 積은 臟病也요 聚는 腑病也요 肺居右而其病亦在右也니라

〈經釋〉<sup>33)</sup>

32) 水의 잘못된 表現 인것 같다.

33)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p.14-p.16.

31)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北, 大學書局, 1976, 難經卷之二 p.2-p.4.

[1-3] 三部는 寸關尺也요 四經은 兩手寸關尺各候一臟一腑也라

[4] 手太陰은 屬肺하고 手陽明은 屬大腸이니 皆診於右寸이라

[5] 足太陽은 屬膀胱하고 足少陰은 屬腎이니 皆診於左尺이라

[6] 右寸은 爲上하고 左尺은 爲下라

[7-12] 此는 言左右手循環相生者也라

[13] 足厥陰은 屬肝하고 少陽은 屬膽이니 皆診於左關이라

[14-15] 手太陽은 屬小腸하고 手少陰은 屬心하니 皆診於左寸이라

[16-18] 手心主即手厥陰心包絡也요 手少陽은 屬三焦하니 推本文之義則宜診於右尺이라

[19] 足太陰은 屬脾하고 足陽明은 屬胃하니 皆診於右關이라

[20-22] 以上은 釋三部四經上下之義니 下文又論하면 所主之病也라

[23-28] 三部는 各有浮中沈하니 故로 爲九也라

[29-30] 此又不以經絡이요 以部位言이라

[31-33] 此四字一作尺이니 爲下部法而應乎地라

[34] 卽素脈要精微論에 所云上竟上者는 胸喉中事也요 下竟下者는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라 但此候脈法하고 與此微別이라

[35] 謂審其病之上下而刺는 其所在則鍼不誤施也라 本義에 謝氏는 謂此一節은 當是十六難中答辭요 與下文又不相屬이니 其說近是니라

[1-35] 按컨데 素脈要精微論에 尺內兩旁則季脅也니 尺外以候腎脈이요 尺裏以候腹이라 中附上이요 左外以候肝이요 內候鬲이요 右外以候胃요 內以候脾라 上附上이니 右外以候肺內以候胸이요 中左外以候心이라 內以候臍中이라 前以候前이요 後以候後니 其診法與脈經難經俱互異라 此篇所論六經部位는 乃素問血氣形志論에 所謂足太陽與少陰爲表裏하고 陽明與太陰爲表裏하고 是爲足陰陽也라 手太陽與少陰爲表裏하고 少陽與心主爲表裏하고 陽明與太陰爲表裏하니 是爲手之陰陽也라 以此爲據 而後世脈經脈訣因之라 但素問止言經絡表裏如此요 并不指爲診脈之位니라 今乃以右尺診心이요 主少陽이니 及第八難以腎爲三焦之原이라 三十九難에 又謂命門氣與腎通하니 皆互相證明也라 按컨데 素三部九候論에 三部는 指上部中部下部요 九候는 謂上部天은 兩額之動脈이요 上部地는 兩頰之動脈이요 上部人

은 耳前之動脈이라 中部天은 手太陰也요 中部地는 手陽明也요 中部人은 手少陰也라 下部天은 足厥陰也요 下部地은 足少陰也요 下部人은 足太陰也라 今乃以寸關尺爲三部요 以浮中沈爲九候니 總無一合이라 蓋內經診脈之法은 其途不一하니 而難經則專以寸口爲斷하고 於是將經中診法이라 盡附會入之에 此必別有傳授하니 不可盡議其非하니 然既取經文以發其義면 自當悉本乎經也라

[36-38] 一本無病字라

[39] 積氣는 積聚之氣也라

[40] 右脇은 肺之部也요 結은 爲積聚之脈이라 素平人氣象論에 云結而橫有積矣라

[41-46] 一作脈이라

[47] 沈伏은 亦積氣之脈이요 右手統指三部言則肺脈이니 亦在其中하고 又右手氣口脈所以候裏也라

[48-49] 痼疾은 凡肌肉筋骨間久留不去之病이니 皆是以其不在臟腑하니 故로 曰外라

[50-52] 無常數乃爲結脈之象이니 若有常數者는 或四十動一止하고 或三十動一止하여 乃代脈主死하니 不但有積矣라 蓋結脈之所由生以積聚니 在內脈道不通인 故로 其現脈如此라

[53-57] 言結伏則病在裏요 結浮則病在表요 結左右病亦在右요 結在左病亦在左이니 以此推之則內外左右積氣痼疾은 其結脈同而浮伏異也라 故로 曰法皆如此니라

[58-66] 病脈不相應이면 乃眞氣已漓하여 血脈不相聯屬하는 故로 云死也라

[5-66] 按컨데 凡府與脈不相應者는 皆爲死證이요 不特積聚爲然也라 又按컨데 人病以下至末이면 與前又不類이니 疑是五十二 五十五 五十六等難內錯簡이라

《懸解》34)

[1-22] 脈有三部는 寸關尺也요 部有四經은 陽寸에 心肺二腸하고 兩關에 肝膽脾胃하고 兩尺에 腎膀胱心主三焦也라 手太陰肺陽明大腸은 金也35) 요 生足少陰腎足太陽膀胱水36)요 水流下行而不能上이니 故로 在下部라 足厥陰肝少陽膽은 木也37) 요 生手太陽小腸手少陰心火38)요 火炎上行而不能

34)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639-p.640.

35) 右寸에 나타난다.

36) 左尺에 나타난다.

37) 左關 其實肝脾經於左關 膽胃見於右關

38) 左寸에 나타난다.

下니 故로 爲上部라 手心主包絡少陽三焦는 火也<sup>39)</sup>요 生足太陰脾足陽明胃土<sup>40)</sup>요 土主中宮이니 故로 在中部也라

[23-35] 素問三部九候는 法與此不同이라

[36-66] 藏病曰積이요 府病曰聚라

《闡註》<sup>41)</sup>

《正義》<sup>42)</sup>

[1-7] 滑氏曰 此篇入問之意는 謂人有十二經脈하고 凡有三部하고 每部之中有四經하니 今手有太陰陽明하고 足有太陽少陰하니 爲上下部는 何爲也요 蓋三部者는 以寸關尺分上中下也라 四經者는 寸關尺兩兩相比니 則每部各有四經矣니라 手之太陰陽明과 足之太陽少陰은 爲上下部者니 肺居右寸하고 腎居左尺하여 循環相資하니 肺高腎下요 母子相望也라

經에 云藏眞高於肺하고 藏眞下於腎이니 是也니라

[8-22] 手太陰肺手陽明大腸屬金이니 皆診於右寸하고 足少陰腎足太陽膀胱屬水하니 皆診於左尺이라 金生水요 水性流下니 故로 在下部也라 足厥陰肝足少陽膽屬木이니 皆診於左關하고 手太陽小腸手少陰心屬火니 皆診於右寸이라 木生火요 火性炎上이니 故로 在上部也라 手厥陰心包絡手少陽三焦屬相火니 當候於右尺이요 足太陰脾足陽明胃屬土니 當候於右關火요 火生土요 土位居中하니 故로 在中部也라 土復生金하니 此五行子母는 循環生養하고 三部四經上下之義也라

[23-35] 三部之中에 各有浮中沈은 是爲九候라 浮爲陽하고 沈爲陰하고 中者胃氣也라 所謂自膈以上爲上焦也요 自膈以下爲中焦也요 自膈以下至尺爲下焦也라 謝氏曰 此一節當是十六難中答辭에 錯簡在此하니 而剩出脈有三部九候各何主之十字라 且審而刺之니이다 楊氏云 爲審候病之所在而刺之라 丁氏云 當次第之次요 紀氏則爲刺候之義는 各有之理니 姑存備參이라

[36-47] 此病久積聚는 可切脈而知之也라 肺金右降하니 右脇肺之部也라 若右脇有積聚면 則肺脈當結이요 結脈往來하면 緩時一止요 復來而無定數者는 是也라 皆結爲積聚之脈이니 素問平人氣象論曰 結而橫은 有積矣라 然이나 積氣微甚은 是以結甚則積甚이요 結微則氣微也라 設肺脈雖不見結이면 而右手脈當見沈伏하고 沈伏亦積聚脈이라 右手統三部言則肺脈亦在其中이요 又右手氣口所以候裏也라

[48-57] 此承上文은 復問外之痼疾이요 與內之積聚니 法將同異也라 痼疾者는 凡肌肉筋骨間久留不去之病皆是이니 以其不在臟腑니 故로 曰外也라 至無常數는 結脈之象이니 若有常數하면 爲代脈矣이라 蓋結脈之所由生하면 以積聚在內요 脈道不通인 故로 現脈如此也라 伏脈輕手尋之不見이면 重按以指推筋着骨하여 乃得其脈形潛隱於骨間者한데 是也라 言結伏則病在裏하고 結浮則病在表하고 結在右면 病亦在右요 結在左면 病亦在左니 以此推之면 則內外左右에 積氣痼疾이라 其結脈雖同이나 而浮伏異也니 故로 曰法皆如此라

[58-66] 有是病이면 必有是脈이요 內有積聚면 脈宜伏結이요 外有痼疾이면 脈宜浮結이요 設見伏結浮結之脈하나 而無伏結浮結之脈은 謂之脈不應病이요 病不應脈也라 夫病脈不相應이면 乃眞氣已離요 血脈不相聯屬인 故로 云死라 然이나 凡病與脈不相應者는 皆爲死候하니 不持積聚爲然也니라

《匯海》<sup>43)</sup>

滑伯仁註 [2-22] 此篇立問之意는 謂人十二經脈은 凡有三部하고 每部之中有四經이니 今手有太陰陽明하고 足有太陽少陰하니 爲上下部는 何也오 蓋三部者는 以寸關尺分上中下也요 四經者는 寸關尺兩兩相比니 則每部各有四經矣라 手之太陰陽明과 足之太陽少陰은 爲上下部者요 肺居右寸하고 腎居左尺하니 循環相資하여 肺高腎下요 母子之相望也라 經에 云藏眞高於肺요 藏眞下於腎인데 是也라

40) 右關에 나타난다.

41) 丁錦, 古本難經闡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20-p.22.

《闡註》에서는 原文의 基準으로 삼는 《難經本義》와 內容 自體가 다르게 되어있다. 《闡註》의 原文은 다음과 같다.

“脈有太過요 有不及요 有陰陽相乘이요 有覆有溢요 有關有格한데 何謂也요 然이나 關之前者는 陽之動也니 脈當九分而浮요 過者는 法曰太過하고 減者는 法曰不及이라 遂上魚爲溢하고 爲外關內格이니 此陰乘之脈也라 關以後者는 陰之動也요 脈當一寸而沈過者는 法曰太過하고 減者는 法曰不及하니 遂入尺爲覆하면 爲內關外格이니 此陽乘之脈也라 故로 曰覆溢이라 是其眞臟之脈은 人不病而死也라”

42) 葉子雨,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33-p.36.

43)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p.54-p.57.

39) 右尺에 나타난다.

〔58-66〕有是脈인데 無是病하며 有是病인데 無是脈이면 脈病不相應이니 故로 爲死病也라

楊玄操註〔25-35〕寸口는 陽也요 關는 中部也요 尺은 中陰也라 此三部各有浮中沈三候하고 三三九候也이 故로 曰九라 浮爲陽하고 沈爲陰하고 中者胃氣也라 自膈以上爲上焦니 故로 曰上部法天이요 自膈以下爲中焦니 故로 曰中部法人이요 自臍以下至足爲下焦니 故로 曰下部法地라 用針者는 必當審詳三部九候病之所在니 然後各依其源而刺之也라

徐大椿註〔24-28〕內經診脈之法도 其途不一인데 而難經則專以寸口爲斷은 於是將經中診法附會入之라 此必別有傳授하니 不可盡讓其非也라

〔48-65〕痼疾은 凡肌肉筋骨間久留不去之病이니 皆是라 以其不在藏府면 故로 曰外라 無常數乃爲結脈之象이나 若有常數者는 或四十動一止하고 或三十動一止하니 乃代脈主死나 不但有積矣라 蓋結脈之所由生하면 以積聚在內요 脈道不通인 故로 其現脈如此라 又言結伏則病在裏하고 結浮則病在表하고 結在右이면 病在右요 結在左이면 病在左이니 以此推之면 則內外左右積氣痼疾은 其結脈同而浮伏異也니 故로 曰法皆如此라

〔64-66〕病脈不應하면 乃眞氣已漓하고 血脈不相聯屬이니 故로 云死也라 凡病與脈不相應者는 多爲死證이니 不特積聚爲然也라

張世賢註〔23-35〕浮陽也요 沈陰也요 中陰陽之間也라 寸關尺三部는 俱有浮中沈三候하고 三而三之는 合成九也니 此與素問三部九候篇小異니이다 素問三部에 人身上中下三停也라 九候分九處니 以候九藏也라 此則總括三停九處於兩手寸關尺니 寸爲上部法天하니 主胸已上至頭之有疾하고 關爲中部法人하니 主胸下至臍之有疾하며 尺爲下部法地하니 主臍下至足之有疾하라 本經言每部三候浮中沈之三等하니이다 素問言每部三候天地人之三處요 越人之見에 得於素問中來其所候에 雖有不同하나 其主疾則一이다 審而刺之者는 審其脈而刺其病이라 勿令上中下諸經之有錯也라 潔古云 隨其上下審其部位而刺之라하니 手之經瀉陽補陰하고 足之經瀉陰補陽하고 中部法人調陰陽이라 臨時致宜니이다 紀氏曰 審而刺之者는 此篇上下不說用針刀라 訊楊玄操高承德以刺解針하니 且素問本意는 專然用針以刺라 解針獨爲得理니 大抵針藥一理에 雖云用針이나 醫藥亦同이라

《古義》44)

〔36-66〕按컨데 此舊本第十八難에 文義具前註末節然字下니 古經腕內有積氣云云十六字하니 近世浪華林見宜難經或問中이라 既已補入하니 今從之하니이다

《哀腋》45)

〔1-7〕脈有寸關尺之三部요 分上中下也라 每部左右하니 兩兩相比하여 則各有四經이라 以診十二經脈矣니라 而手太陰陽明爲上部하고 足太陽少陰爲下部하니 其意何也요 蓋以間起三部配位之妙也니라

〔8-22〕手太陰肺요 手陽明大腸이니 二經屬金이라 位右寸이니 金能生水라 故로 下生足少陰腎하고 足太陽膀胱이라 二經之水라 以水性下流니 故로 爲下部라 居左尺이니 水又生足厥陰肝하고 足少陽膽이라 二經之木은 木生手少陰心이요 手太陽小腸이라 二經之君火요 火炎上行하니 故爲上部라 居左寸이면 手厥陰心主요 手少陽三焦니 二經之火라 以臣相居右尺이니 爲火之閏位하고 火生足太陰脾요 足陽明胃니 二經之土라 土以主中宮이니 故在中部라 土復生手太陰陽明金하고 此五行子母에 更相生養者也니라 按컨데 首言肺金者는 蓋以肺朝百脈하니 寸口者는 手太陰之動脈이니 而三部統屬寸口也라 今越人推五行相生之理한데 立三部而寄十二經脈하고 實軒岐之所未發也라 卽一難所謂獨取寸口者는 蓋以此也爾니이다 吳氏謂한데 素問諸經之部候卽儒者求道於散殊하고 難經寸口之部候 卽儒者本之於一貫也요 善哉라 又按컨데 近世注素問者는 以其脈要精微論에 尺內一章은 不可通解하고 欲強合越人三部四經之說하니 以寸之一部라 則曰右寸配肺與胸中이요 左寸診心與膻中也니 若其肺與大腸經은 自爲表裏心與小腸經하고 亦爲一合니이다 經訓炳然이니 故越人以此爲四經이요 而配左右寸部나 未聞胸中膻中爲何經脈이라 或辭曰 膻中指心主也요 夫心主者는 既與三焦爲表裏니 屬相火位右尺이라 以生中宮之土하니 未聞十二經中이라 心與心主는 爲表裏一合이라 其他如分一部之前後에 枉以爲內外하고 候一脈之半片이라 爲有兩傍하니 種種矯飾不一이요 家家擾論莫輟하니 實堪爲之大息焉이리요 高明君子誠勿蹈其弊哉오

〔23-28〕三部寸關尺也요 爲上中下部니 而每部

版社, 1985, p.18-p.19.

《古義》에서 第十八難은 舊十九難으로 되어 있고 《本義》에서 原文으로 제시된 文章의 一部가 第十七難의 끝부분에 나타난다.

45) 加藤宗博, 盧經哀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69-p.78.

44) 滕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

各有浮中沈三診이라 三三見九하니 是爲九候니이다 浮爲陽하고 沈爲陰하고 中者陰陽相半也라 按컨데 素問三部九候論에 分人身作三停이요 爲上中下三部 하니 每部에 又分天地人三候라 故爲九候니 九處以候之니이다 今越人以寸關尺爲三部하고 分浮中沈兼九候니 亦約之寸口耳라 又按컨데 診家浮以候府는 陽也요 沈以候藏은 陰也요 中以候胃氣는 其用如此 하니 然則九候乃十二經脈之診法也라

[29-35] 寸爲上部法天하고 關爲中部法人하고 尺爲下部法地하니 一身三停에 宜詳審其病之所在에 而鍼刺之也라

[36-37] 按컨데 上文謂어늘 分三部而知其病所 하고 因問如積聚之病하니 亦可切脈而知其所在耶라

[38-42] 滑氏曰 結爲積聚之脈이요 肺脈見結이 니 知右脇有積氣요 右脇肺部也니 積氣有微甚하면 脈從而應之하니이다

[43-47] 沈伏主裏하니 沈伏而結者는 內有積聚之脈也라

[48-57] 結爲積聚에 伏主裏하고 浮主表하니 外之痼疾在表가 故脈當浮結하며 內之積聚在裏하니 脈當伏結이라 是內外所以異也라 病在左則脈結於左 하고 病在右則脈結於右하니 故曰法皆如此는 外痼疾이요 謂癭瘤結毒之類니 亦氣血凝滯所爲也라

[58-66] 有是脈無是病하고 有是病無是脈하면 脈病不相應이니 故爲死病也라

《疏證》46)

[1-22] 按컨데 詳經文하면 唯說以三部配六經之義나 而非左右排位之謂也라 然其言曖昧難識이니 故舉楊注以解之하니 是復掠取王氏脈經之說이라 而爲解者는 其實亘以確據矣니이다

[23-35] 按컨데 楊注以後에 以此段爲左右三部요 分配藏府之義이나 然이나 內經及難經은 未嘗有 其說이라 蓋出于脈經兩手六脈所主臟腑陰陽逆順篇 이니 所引脈法贊文이라 紀天錫集注에 極辨其碎義 難據하니 實爲精當하니이다 脈經又有分別三關境界 脈候篇曰 寸主射上焦하고 出頭及皮毛竟手하며 關 主中焦하니 腹及腰하고 尺主射下焦하니 少腹至足 이라 義與此段同하니이다 刺字는 楊注爲針刺하고 丁注當作次字라하고 紀氏爲刺候之義라하니 未知孰 是이라

[48-66] 按컨데 痼는 卽痼俗字라 說文曰 痼久 病也라 從疒古聲하니 又通作固라 錮는 禮月令曰

季冬之月行春令이니 則國有痼疾에 注는 生不充性 이요 有久疾也니이라 漢冊賈誼傳曰 失令不治하면 必爲痼疾이라

【考察】

本難의 主要內容은 左右의 寸關尺 三部와 臟腑 經脈의 配合關係를 論한 것으로 各 臟腑의 疾病部 位에 따른 臨床診察을 爲해 敍述된 것이다. 이와 같은 配合原理는 五行相生의 說을 바탕으로 하여 形成한 것으로 各其 그 性質에 따라 相生의 循環 關係를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原則에 의거하여 原文을 整理하면 아래 같은 表로서 나타낼 수 있다.

〈左右寸關尺三部와 臟腑經絡配合表〉

左右手	三部		
	寸	關	尺
左	手少陰心 (火)	足厥陰肝 (木)	足少陰腎 (水)
	手太陽小腸	足少陽膽	足太陽膀胱
右	手太陰肺 (金)	足太陰脾 (土)	手厥陰心包絡 (火)
	手陽明大腸	足陽明胃	手少陽三焦

《難經》以後로 歷代의 적지 않은 醫家들이 左右의 寸, 關, 尺 三部와 臟腑經脈의 配合에 關한 理論들을 提示하였는데 各其 差異가 있어 여러 醫家들의 見解를 整理하여 아래에 提示하였다.

〈寸關尺三部配合의 臟腑異同對照表〉

左右三部	寸		關		尺	
	左	右	左	右	左	右
臟腑配合						
醫家姓名						
王叔和	心 小腸	肺 大腸	肝 膽	脾 胃	腎 膀胱	腎 命門
李瀕湖	心 膻中	肺 胸中	肝 膽	脾 胃	腎 小腸	腎 命門 大腸
張景岳	心 心包絡	肺 膻中	肝 膽	脾 胃	腎 膀胱 大腸	腎 三焦 命門 小腸

《難經》에 뒤이어 위 表는 三人의 學說을 說明 하고 있는데, 五臟의 部位는 基本的으로 一致하지 만 六腑의 部位가 若干 다르다. 《難經》에서 처럼 王叔和는 臟腑相合의 關係 위에서 小腸이 左寸 에 配置되어 있고 大腸은 右寸에 配置되어 있는 것으로 把握하였으며 李瀕湖는 陽左 陰右, 陽上 陰下의 意味를 좇아 보다 上位에 있는 小腸은 左

46) 丹波元胤, 難經疏證, 서울, 一中社, p.960-p.962.

尺에, 아래쪽에 있는 大腸은 右尺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張景岳은 金水相生의 意味를 좇아 大腸(屬金)은 左尺(腎屬水)에 配置하였고 한편으로 火를 火의 位置가 갖는 意味로 歸着하여 小腸(屬火)은 右尺(三焦, 命門역시 火에 屬한다.)에 配置하였다. 臟腑가 相合한다는 것은 五臟이 主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腑로서 臟에 配置하는 것이 보다 合理的인 것이다.<sup>47)</sup>

本篇의 “然 三部者 寸 關 尺也 …… 審而刺之者”는 《難經本義》에서 謝氏曰 “當是十六難中答辭 錯簡在此”라하여 잘못 插入된 文章이라 하였다. 48)49)50)

한편 本篇에서는 積聚와 痼疾에 對한 脈象上의 辨別에 대해 積聚病은 裏部에 있고 痼疾病은 表部에 있기 때문에 그 脈象은 마땅히 浮結하다고 認識하였다. 積聚와 痼疾은 結脈에서 大部分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原因은 積聚病은 많은 理由가 氣滯와 血凝으로 인하여 惹起되는 것이며 痼疾 또한 病의 進行이 오래되어 낳지않는 환자에게는 반드시 氣血의 運行에 影響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結脈은 바로 이와 같은 氣血의 阻滯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臨床上으로 볼 때 積聚와 痼疾은 一定 하진 않지만 必히 結脈이 보이고 또한 結脈이 나타나는 患者에게는 일정하진 않지만 積聚와 痼疾이 있는 것이다. 所謂 “脈不應病 病不應脈 是爲死病” 이라는 말은 마땅히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原文】

第十九難 男女의 正常맥과 反常脈에 關하여 論함

十九難曰<sup>(1)</sup> 經에 言脈有逆順<sup>(2)</sup> 라야 男女有恒<sup>(1)(3)</sup> 하여 句<sup>(2)</sup> 而反者<sup>(4)</sup> 라하니 何謂也<sup>(5)</sup> 오

然이나 男子生於寅<sup>(6)</sup> 하고 寅爲木<sup>(7)</sup> 라야 陽也<sup>(8)</sup> 오

女子生於申<sup>(9)</sup> 하니 申爲金<sup>(10)</sup> 라야 陰也<sup>(11)</sup> 라

故로 男脈은 在關上<sup>(12)</sup> 하고 女脈은 在關下<sup>(13)</sup> 하니 是으로 男子尺脈恒弱<sup>(14)</sup> 하고 女子尺脈恒盛<sup>(15)</sup> 이 是其常也<sup>(16)</sup> 오

反者는 男得女脈<sup>(17)</sup> 하고 女得男脈也<sup>(18)</sup> 라

其爲病은 何如<sup>(19)</sup> 오

然이나 男得女脈이면 爲不足<sup>(20)</sup> 이니 病在內<sup>(21)</sup> 하고 左得之면 病在左<sup>(22)</sup> 하고 右得之면 病在右<sup>(23)</sup> 는 隨脈言之

也<sup>(24)</sup> 오

女得男脈이면 爲太過<sup>(25)</sup> 니 病在四肢<sup>(26)</sup> 하고 左得之면 病在左<sup>(27)</sup> 하고 右得之면 病在右<sup>(28)</sup> 도 隨脈言之<sup>(29)</sup> 니 此之謂也<sup>(30)</sup> 라

【解釋】

第十九難

十九難에 이르기를, 經에 脈象에 逆順이 있고, 男女에도 一定한 正常的인 脈象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相反되는 脈象이 나타나는 理由는 무엇인가?

답하기를, 男子는 寅에 該當하는 時期에 태어나고, 寅은 木과 梁에 屬한다. 女子는 申에 該當하는 時期에 태어나고, 申은 金과 陰에 屬한다. 그러므로 男子의 脈은 關위의 寸部가 旺盛하고, 女子는 關아래의 尺部가 旺盛하다. 그러므로 男子의 尺脈은 恒常 弱하고 女子의 尺脈은 恒常 旺盛한데, 이것이 모두 正常的인 脈象이다. 그러나 反對로 男子에게 女子의 脈象이 나타나고, 女子에게 男子의 脈象이 나타나면 그 病의 樣相은 어떠한가?

답하기를, 男子가 女子의 脈象을 띠면 陽氣가 不足한 虛證으로 病이 內部에 있고, 왼손에 나타나면 病이 왼쪽에 있으며, 오른손에 나타나면 病이 오른쪽에 있어서 脈象의 變化에 따라 發病의 部位를 說明할 수 있다. 女子가 男子의 脈象을 띠면 陽氣가 有餘한 實證으로 病이 四肢에 있고, 왼손에 나타나면 病이 왼쪽에 있으며, 오른손에 나타나면 病이 오른쪽에 있어서 脈象의 變化에 따라 發病의 部位를 說明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다.

【出處】

【校勘】

<1> 恒 : 《校注》에서는 ‘常’으로 되어 있다. 《集注·音釋》: “恒, 音常, 久也.”라 했으니, 「恒」은 「常」과 같다. 《周禮·地官·賈師》: “使有恒賈”에 鄭注는 “恒, 常也”라 되어 있다.<sup>51)</sup>

48)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49~p.50.

49)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p.51.

50)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p.38.

47)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48~p.49.

〈2〉句：《匯海》에는 '句'가 없다.

【字句解】

逆順：다음 문장에 나오는 男女左右尺寸脈의 盛衰規律과 脈象이 符合하는 여부를 가리킨다. 不합할때가 '順'이고, 不합하지 않을 때가 '逆'이다. 52)53)

男子生於寅 女子生於申：《說文·包部》：「元氣는 子에서 시작하니 사람이 生함이다. 男子는 左行三十, 女子는 右行二十하면, 모두 巳에 있게 되니 夫婦가 됨이다. 巳에서 임신을 하니 巳는 子이고, 十個月지나 生하게 된다. 男子는 巳에서 시작해 寅에 이르고, 女子는 巳에서 시작해 申에 이른다. 따라서 男子始寅·女子始申이라 한 것이다.」(元氣起於子 人所生也 男左行三十 女右行二十 俱立於巳 爲夫婦 妻妊於巳 巳爲子 十月而生 男起巳至寅 女起巳至申 故男子始寅 女子始申)

恒：'常也'로 恒常함을 나타낸다.

反：上下強弱의 相反됨을 나타낸다.

【各家注】

《本義》54)

〔1-5〕恒은 胡登反이 常也라 脈有逆順하야 據男女相比하니 而言也라 男脈在關上하고 女脈在關下하니 男子尺脈은恒弱하고 女子尺脈은恒盛하니 此男女之別也라

逆順云者는 男之順女之逆也라 女之順男不同也니 雖然이나 在男女則各有常矣라 反은 謂反其常也라

〔6-16〕此는推本生物之初니 而言男女陰陽也라 紀氏曰 生物之初는 基本原皆始於子하고 子者는 萬物之所以始也라 自子推之면 男左旋三十하야 而至於巳라 女右旋二十하야 而至於巳니 是男女婚嫁之數也라 自己而懷娠하야 男左旋十月이면 而生於寅하며 寅爲木이요 陽也라 女右旋十月이면 而生於申이니 申爲金이요 陰也라

謝氏曰 寅爲木하고 木生火라 又火生於寅이요 而性炎上하니 故男脈在關上이라 申爲金하고 金生水하고 又水生於申이요 而性流下니 故女脈在關下라

愚謂어늘 陽之體는 輕清而升하고 天道也니 故男脈在關上이요 陰之體는 重濁而降하고 地道也니 故女脈在關下라 此男女之常也니라

〔17-18〕男女異常은 是之謂反이라

51)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p.41.

〔19〕問反之니 爲病也라

〔20-30〕其反常이면 故太過不及이라 在內在外之病見焉이라

《集注》55)

〔1-11〕楊曰 元氣는 起於子하니 人之所生也라 男從子左行三十하야 之巳하고

女從子右行二十하야 俱至於巳하니 爲夫婦懷娠也라 古者는 男子三十女年二十然後에 行嫁娶하니 法於此也라 十月而生에 男從巳至寅하니 左行爲十月인 故로 男行年起於丙寅이라 女從巳右行至申하니 爲十月인 故로 女行年起於壬申 이라 所以男子生於寅하고 女子生於申이라

虞曰 經言에 男子生於寅하고 女子生於申은 謂其父母之年이 會合於巳上하야 男左行十月至寅而生하고 女右行十月至申而生也라 小運人言에 男一歲는 起於丙寅하고 女一歲는 起於壬申이라하니 難經은 不言起而言生이니 謂生下已爲一歲矣라 丙壬二干은 水火也요 水火는 爲萬物之父母라 寅申二支는 金木也요 爲生物成實之終始라 木은 胞在申하고 金은 胞在寅하니 二氣는 自胞相配라 故로 用寅申也라 金生於巳하고 巳與申은 合이라 故로 女子取申이라 木生於亥하고 亥與寅은 合이니 故로 男子取寅이라 所以男年十歲에 順行在亥하고 女年十歲에 逆行亦在亥라 男年十六에 天癸至하야 左行至巳하니 巳者는 申之生氣라 女年十四에 天癸至하니 右行亦在巳라

與男年同在에 本宮生氣之位는 陰陽相配乃成夫婦之道니 故로 有男女也라 上古天真論曰 男二八而天癸至하야 精氣溢하야 陰陽和한 故로 能有子라

楊氏言 男三十行年에 在巳하야 方娶於此는 非也라 女二七天癸至하야 任脈通하고 冲脈盛하야 月事以時下한 故로 能有子라 楊氏言 女二十에 右行之巳하야 方嫁於此는 義非矣라 楊氏之言에 但合古禮行夫婦嫁娶之法이나 又與本經天癸之數는 相違也라 況聖人於此十九難中에 論男女配合之道는 陰陽交會之所言이니 天癸之數는 知脈盛於上下하고 推之強弱하니 診其有餘不及이라 若至言에 三十而娶하고

52)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p.53.

53)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p.41.

54)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p.53-p.54.

55)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 p.121-p.125.

二十而嫁는 於本經診治之道니 憑何依據리오

[12-16] 丁曰 其言男子女人尺脈者는 是陰陽之根本也라 逆順者는 爲陽抱陰生하고 陰抱陽生也라 三陽始生於立春하고 建寅한 故로 曰男生於寅이라 木은 陽也라 三陰은 生於立秋하고 七月建申한 故로 言女生於辛이라 金은 陰也라 男子之氣는 始於少陽하고 極於太陽하니 所以男子尺脈恒弱하고 而寸脈陽也라

女子之氣는 始於太陰하고 極於厥陰하니 女子尺脈浮하고 而寸脈沈이라 故로 云 男脈在關上이오 女脈在關下니 此是男女逆順은 有常而反也라

楊曰 男子는 陽氣盛한 故로 尺脈이 弱하고 女子는 陰氣盛한 故로 尺脈이 强하니 此是其常性이라

[17-30] 丁曰 男得女脈이면 言不足者니 是陰不足은 卽陽入乘之하니 故로 陽不見於寸口而反尺內陰氣하니 主內不足인 故로 知病卽在內니이다 女得男脈이면 爲太過病이오 在四肢者는 女子尺脈本浮更加見於寸이니 是爲太過하여 陽主外인 故로 病在四肢라 隨其脈하여 左右言之하면 左得之病은 在左요 右得之病은 在右也라

楊曰 男得女脈이면 爲陰氣盛하고 陰主內인 故로 病在內하고 女得男脈이면 爲陽氣盛하며 主四肢인 故로 病在四肢也라 虞曰 寸口曰陽이라 男以陽用事면 今見陰脈反於天常인 故로 病發於內요 女以陰用事면 今見陰脈反於天常인 故로 病發於內하고 女以陰用事면 今寸口却見陽脈이니 亦是反於天常인 故로 病在四肢라 素問에 曰 四肢는 爲諸陽之本也라

《圖註》56)

[1-18] 逆者는 反也라 順者는 從也라 男女卽陰陽也라 男子生於寅하고 寅爲木而屬陽이니 木能生火요 火乃陽木之子라 故로 曰 男子라 女子生於申하고 申爲金而屬陰이니 金能生水요 水乃陰金之子라 故로 曰 女子라 木生火而火性炎上이니 陽脈所以見於關上하고 金生水而水性流下라 陰脈所以見於關外하니 從寅至午에 其時春夏하니 水生木也라 男子는 寸常盛而尺常弱하니 從申至子에 其時秋冬하니 金生水也라 女子는 尺常盛而寸常弱하니 夫如是 陰陽升降不失하면 其宜是常道也라 反則 男得女脈 秋冬者는 見於春夏요 女得男脈 春夏者는 見於秋冬이라

[19-30] 男見女脈하면 爲不足 春夏秋冬脈也라 春夏萬物生長理는 該寸盛而尺弱이니 今反尺盛而寸

弱하면 是乃腎水邪盛하고 心火陽氣不足하여 不能生長하니 病在內也라 女得男脈하면 秋冬得春夏脈也라 秋冬萬物收藏理는 應尺盛而寸弱이니 今反寸盛而尺弱하면 是虛火盛而腎水衰하고 陽邪太過하여 不能收藏하니 病在外也라 隨其脈之면 在於左右手하니 而言病之하여 在於左右側也라

《經釋》57)

[1-5] 得其脈位順하고 不得其脈位逆은 恒常也라 謂各有一定之法에 反也는 謂上下之強弱相反이라 如下文所云也라 經文에는 無考라

[6-11] 此本은 推天地初生男女之理하여 而言以明이니 脈之所以異也라

按 紀氏天錫은 謂生物之初는 皆本於子요 子者는 萬物之所始也라 自子推之면 男左旋하여 三十而至於巳요 女右旋하여 二十而至於巳니 是男女嫁娶之數也라 自己而懷娠이면 男左旋十月而生於寅하고 女右旋十月而生於申也라

[12-13] 關上屬陽이니 得陽之體者이 應之하고 關下屬陰이니 得陰之體者는 應也라

[14-15] 在關上則尺弱하고 在關下則尺盛也라

[16-18] 盛者는 反弱하고 弱者는 反盛也라

[19-21] 男得陰脈이면 則陽陷於陰하니 故로 爲不足이라 內는 謂心腹之內라 陽氣入陰이면 則病見於陰位也라

[22-24] 此又以脈之左右는 驗病之左右也라

[25-26] 女得陽脈이면 則陰越於陽하니 故로 爲有餘라 四肢는 屬乎陽이라 陰氣從陽이면 則病見於陽位也라

[27-30] 陽道는 全하고 而陰道는 半이라 故로 陽得陰脈은 爲不足이오 陰得陽脈은 爲有餘也라

《懸解》58)

[1-18] 男子生於寅하고 女子生於申하니 男一歲起丙寅하고 順行二歲丁卯하니 以陽生於子요 子至寅而三陽成也라 女一歲起壬申하고 逆行二歲辛未하니 以陰生於午요 午至申而三陰成也라 寅木은 生火하고 火炎은 上하니 故로 男脈在關上하고 申金은 生水하고 水流는 下하니 故로 女脈在關下라 是以로 男子尺脈은 恒弱하고 寸脈은 恒盛하며 女子尺脈은 恒盛하고 寸脈은 恒弱하니 是其常也라 反者는 男得女脈이면 寸弱而尺盛也요 女得男脈이면 尺

57)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p.16.

58)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640-p.641.

56)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北, 大學書局, 1976, 難經卷之二 p.4-p.6.

弱而寸盛也라

[19-30] 男得女脈하면 以陽而變陰이라 故로 爲不足이라 陰盛於內면 故로 病在內라 女得男脈이면 以陰而變陽이니 故로 爲太過라 陽盛於四肢이니 故로 病在四肢라

《闡註》59)

[1-18] 此章은 言男女之脈이니 合陰陽之理하여 以別弱盛之常道라 木數는 三也니 故로 男子陽生於寅이요 金數는 四也니 故로 女子陰生於申이라 男當陽旺者는 旺於寸陽之位이니 故로 曰 在關上이요 女當陰旺者는 旺於尺陰之位이니 故로 曰 在關下라 若男寸弱女寸盛하면 則病矣라 義在下文이라 後人 이 解男生於寅女生於申하여 從胎元而論하니 皆因看板生字故也라

[19-30] 此는 言陰陽反相之脈이니 謂男得女脈 爲不足者는 寸脈弱이니 陽氣不足於內인 故로 病在內也라 左寸脈弱은 病在左요 右寸脈弱은 病在右니 若女得男脈爲太過者는 寸脈盛이니 陽氣有餘於外인 故로 病在四肢也라 左寸脈盛은 病在左요 右寸脈盛은 病在右矣라 此章論病은 只論寸脈하고 不論尺脈者니 何也요 蓋人之有尺한데 猶樹之有根이라도 欲其盛而不可得也라 若男得女脈하면 指尺盛이니 豈可謂之不足乎리오 女得男脈하면 指尺弱이니 豈可謂之太過乎리오 舊註에 以男脈爲春夏라하고 女脈爲秋冬이라하니 與本文毫無干涉矣라

《正義》60)

[1-5] 恒은 常也라 反은 謂上下相反也라 此男女之脈은 有一定恒常之法이니 得其脈이면爲順이요 不得其脈이면爲逆이니 若強弱相反이면 則爲何病이라

[6-16] 此는 推本生物之初하여 而言男女陰陽也라 楊氏曰 元氣始於子이니 人之所生也라 自子推之 하면 男從左行三十하여 而至於巳하고 女從右行二十하여 而至於巳하니 爲夫婦懷妊也라 古者는 男子三十이요 女子二十이니 然後에 行嫁娶하니 法本於此라 十月而生에 男從巳左行十月至寅하니 故로 男行年起於丙寅이라 女從巳右行十月至申하니 故로 女行年起於任申이라 所以男子生於寅하고 女子生於申也라 謝氏曰 寅爲陽木이니 木生火하고 火生於寅하니 其性炎上인 故로 男脈在關上이라 申爲陰金이니 金生水하고 水生於申하니 其性流下인 故로 女脈在關下라 男子陽氣盛하니 故로 尺脈弱하고 女子陰

氣盛하니 故로 寸脈弱이라 此는 男女之常也라

[17-19] 男得女脈하고 女得男脈하면 異乎恒常이니 謂之反이라 然이나 反之爲病如何요 設此問以起下文之義라

[20-30] 男得女脈者는 寸脈當盛이나 反弱하고 尺脈當弱이나 反盛하니 爲陰氣盛하여 陽陷於陰한 故로 爲不足이라 陰主內한 故로 病在內하고 陽氣入陰하여 病見於陰位也라 女得男脈者는 寸脈當弱이나 反盛하고 尺脈當盛이나 反弱하니 爲陽氣盛하여 陰氣於陽한 故로 爲有餘이라 四肢屬乎陽하고 陰氣從陽하니 則病見於陽位也라 左右者는 以脈之左右로 以驗病之左右耳라 徐氏曰 陽道全而陰道半이라 故로 陽得陰脈爲不足이요 陰得陽脈爲有餘也라

按컨대 丁錦曰 人之有尺한데 猶樹之有根이라도 欲其盛而不可得也라 若男得女脈하면 指尺盛하니 豈可謂之不足乎리오 女得男脈하면 指尺弱하니 豈可謂之太過乎리오 蓋男得女脈爲不足者는 寸脈弱하여 陽氣不足於內인 故로 病在內也라 女得男脈爲太過者는 寸脈盛하여 陽氣有餘於外하니 故로 病在四肢也라 斯言也라 似亦近理는 而不可泥執者也라 夫尺爲脈之根이니 宜盛不宜弱이 是矣라 然이나 陰虛火動하여 兩尺洪而有力者는 豈非不足乎아 火炎於上하니 兩寸洪而有力者는 豈非太過乎아 更有兩寸豁大無力은 宜大補者며 兩尺豁大無力은 宜升陽散火者라 寸脈大於尺脈하고 而俱有力은 爲陰虛陽盛이니 宜下者라 尺脈大於寸尺<sup>61)</sup>하고 而俱有力은 爲陽虛陰盛이니 宜汗者라 然이나 脈之變은 非一言能盡이니 豈可膠柱鼓瑟耶아 越人은 示人以男女陰陽之體라 內外不足太過之變은 要在一隅三反耳라 學者는 審諸라

《匯海》<sup>62)</sup>

滑伯仁注 [2-18] 恒은 常也라 脈有逆順하니 據男女相比而言也라 男脈在關上하고 女脈在關下하니 男子尺脈恒弱하고 女子尺脈恒盛하니 此男女之別也라 逆順云者는 男之順이요 女之逆也요 女之順이요 男不同也라 雖然이나 在男女則各有常矣아 反은 謂反其常也라

[6-13] 陽之體는 輕清而升하여 天道也니 故로

60) 葉子雨,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36-p.38.

61) 脈의 誤字인것 같다.

62)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p.57-p.59.

59) 丁錦, 古本難經闡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22-p.23.

男脈在關上이라 陰之體는 重濁而降하여 地道也니 故로 女脈在關下라

楊玄操注〔6-16〕元氣는 起於子라 人之所生也 是 男從子左行하여 三十之巳요 女從子右行하여 二十俱至於巳니 爲夫婦懷妊也라 古者는 男子三十이요 女子二十인 然後에 行嫁娶니 法於此也라 十月而生이 男從巳至寅이면 左行爲十月인 故로 男行年起於丙寅이라 女從巳右行이면 至申爲十月인 故로 女行年起於壬申이라 所以 男子生於寅하고 女子生於申하니 男子陽氣盛한 故로 尺脈弱하고 女子陰氣盛인 故로 尺脈強하니 此是其常性이라 丁曰 尺脈者는 陰陽之根本也라 三陽始於立春하고 建寅한 故로 曰 男子生於寅이라 木은 陽也라 三陰始於立秋하고 七月建申한 故로 言女生於申라 金은 陰也라 男子之氣는 始於少陽하고 極於太陽하니 所以 男子尺脈恒弱하니 而寸脈陽也라 女子之氣는 始於太陰하고 極於厥陰하니 女子尺脈浮而寸脈沈이라 故로 曰 男脈在關上하고 女脈在關下하니 此是男女逆順有常而反也라

紀天錫注〔6-11〕男左旋十月而生於寅하고 寅爲木이요 陽也라 女右旋十月而生於申하고 申爲金이요 陰也라

徐大椿注〔20-25〕男得陰脈하면 則陽陷於陰한 故로 爲不足이요 內로 謂心腹之內는 陰氣入陰이면 則病見於陰位라 女得陽脈은 則陰越於陽인 故로 爲有餘라 四肢屬於陽하니 陰氣從陽이면 則病見於陽位요 陽道全而陰道半이라 故로 陽得陰脈爲不足이요 陰得陽脈爲有餘也라

丁履中注〔20-27〕此는 言陰陽反常之脈인데 謂男得女脈爲不足者는 寸脈弱陽氣不足於內인 故로 病在內也라 左寸脈弱하면 病在左요 右寸脈弱하면 病在右라 若女得男脈爲太過者는 寸脈盛陽氣有餘於外한 故로 病在四肢也라 左寸脈盛하면 病在左요 右寸脈盛하면 病在右矣라

日醫藤萬卿注〔16-29〕此篇은 太過不及이 主心肺腎肝言한데 卽氣血之僞塞僞實也라 所謂男得女脈하여 寸弱尺盛면 譬猶春夏陽氣不上騰하고 而滯於地下하면 則陰有餘陽不足인 故로 病在內요 內者는 爲陰部有克也라 女得男脈하면 爲太過하고 寸盛尺弱이니 爲陰不足陽有餘라 猶秋冬陽不下降而留於地上인 故로 病在四肢라 爲心腹部有事也라 上左右指脈言하면 下左右指藏部而言之라

《古義》63)

〔1-5〕按 欽대 女脈은 爲逆하고 男脈은 爲順이라 順者는 屬春夏生氣이라하고 從下而上達이라 逆者는 屬秋冬生氣요 從上而下行이라 此謂男女有常也라 如滑註所言에 則逆順與反이면 其義不分이니 失問答之義니 何者는 此難所問이라 凡逆順與反은 自是二義니 答辭亦分爲二件이니 學者思諸라

〔6-16〕按 欽대 此第一件之答辭는 謂男女自然이요 有逆順之分也라 寅은 爲木이요 陽也者니 謂建寅月陽氣始出於地요 而萬物生氣라 皆在於上이면 自寅至未요 六支配於春夏니 而皆陽也라 申은 爲金이요 陰也者니 建申月陽氣下降 而陰始用事요 庶類之生氣라 皆入於地이면 自申至丑이요 六支配於秋冬이니 而皆陰也라 寅申說은 諸家泥矣니 不可從也라

〔17-30〕按 欽대 此第二答은 此篇太過不及이요 主心肺腎肝言하니 卽氣血之偏虛偏實也라 所謂男得女脈은 寸弱尺盛하니 譬猶春夏陽氣不上騰하고 而滯於地下라 則陰有餘하고 陽不足이니 故로 病在內라 內者는 謂陰部有克也라 女得男脈하여 爲太過하면 寸盛尺弱이니 謂陰不足하고 陽有餘니 猶秋冬陽不下降에 而留於地上인 故로 病在四肢라 謂心肺部有事也라 上左右는 指脈位요 下左右는 指藏部言之라

《衰腋》64)

〔1-18〕恒은 常也라 脈有逆順하니 以男女有陰陽之別也라 以合常者는 爲順이요 反常者는 爲逆이라 紀氏曰 生物之初는 其本原皆始於子니 子者萬物之所以始也라 自子推之하면 男左旋三十而至於巳요 女右旋二十而至巳니 是男女婚嫁之數也라 自己懷娠은 男左旋十月而生寅하니 寅爲木陽也라 女右旋十月而生申하니 申爲金陰也라 按 欽대 春爲陽이요 屬木하니 而始於寅이요 秋爲陰이요 屬金하니 始於申이라 是陰陽之用也니 故로 邵子曰 坎離陰陽之限也니 故離當寅이요 坎當申이라 男子生於寅하고 女子生於申하니 理或由此也라 關上은 爲陽之動하니 故로 男脈在關上하고 關下는 爲陰之動하니 故로 女脈在關下라 是以로 男子寸脈恒盛하고 尺脈恒弱하며 女子寸脈恒弱하고 尺脈恒盛이니 是男女之常也라 異常은 是之謂反이라

〔19-30〕鰲峯能氏曰 男子以陽用事요 今陽脈不見於寸이면 而寸反得女子陰弱之脈이니 是爲不足하

版社, 1985, p.19-p.20.

64) 加藤宗博, 盧經衰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78-p.82.

63) 藤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

고 陰主內인 故로 病在內요 女子以陰用事면 寸脈常弱하니 今反得男子陽盛之脈은 是爲太過하고 陽主外한 故로 病在四肢라 隨脈左右所見而言之라

《疏證》65)

[1-15] 按 寸대 脈有逆順하니 言脈有男之所順이면 女之所逆이요 有女之所順이면 男之所逆也이라 男女所生之理는 虞注爲男女天癸之數니 規楊氏之言은 反非라 淮南子汎論訓曰에 禮三十而娶라 注에 三十而娶者는 陰陽未分時에 俱生于子하니 男從子數라 左行三十이면 立于巳하고 女從子數면 右行二十에 亦立于巳라 合夫婦니 故로 聖人因是制禮하면 使男三十而娶하고 女二十而嫁라 其男子從巳數하면 左行十得寅이요 故로 人十月而生于寅이니 故로 男子數從寅起요 女自巳數는 右行得申이니 亦十月而生于申인 故로 女子數從申生也라 說文에 巳包는 象人懷妊이라 巳在中에 象子未成形也니 元氣起于子라 子는 人所生也라 男左行三十하고 女右行二十이면 俱立于巳라 爲夫婦니 懷妊于巳요 巳爲子라 十月而生은 '男起巳至寅하고 女起而至申하니 故男年始寅이요 女年始申也라 是可以證楊說은 而經文實原古禮에 演男女嫁娶之義者니 可知矣라 又 離騷經曰에 惟庚寅吾以降이라 章句云에 寅은 爲陽正이니 故로 男始生이요 而立于寅이라 庚은 爲陰正이니 故로 女始生이면 而立于庚이니 是庚之與申雖不同이나 其爲義則一也라

【考察】

本 難에서는 男女의 脈象에는 區別이 있는데, 一般的으로 男子의 脈은 關上의 寸部가 盛하고, 女子의 脈은 關下의 尺部가 盛하다. 關上의 寸部는 陽에 屬하고, 男子는 陽에 該當되므로 陽脈이 이에 應하고, 關下의 尺部는 陰에 屬하고, 女子는 陰에 該當되므로 陰脈이 이에 應한다. 丁錦은 '女子의 脈은 陰陽의 理致에 符合하여 強弱으로 區別된다'66)고 하였고, 滑伯仁은 '陽의 體가 輕清하여 上升하는 것은 天道이므로 男子의 脈은 關上에 있고, 陰의 體가 重濁하여 下降하는 것은 地道이므로 女子의 脈은 關下에 있다'67)고 하였으니, 이러한 것은 男女가 生理的으로 타고난 正常的인 現象이다.

'男子生於寅 女子生於申'은 金木으로써 陰陽生成의 數로 삼아 比喻한 것으로 이는 木이 되어 陽에

屬하니 東方에서 日出할 때, 陽氣가 旺盛한 것을 象徵하였고, 申은 金이 되어 陰에 屬하니 西方으로 日沒할 때, 陰氣가 旺盛한 것을 象徵하였으니, 이는 옛사람이 比類取象하는 方法으로 男은 陽, 女는 陰의 屬性으로 說明하였다.

만약 相反되게 男子에게 女子의 脈인 寸弱尺強이 나타나고, 女子에게 男子의 脈인 寸強尺弱이 나타나면, 이를 逆이라고 하는데, 이는 正常과 反對되는 病的인 狀態이다. 男子에게 女子의 脈이 나타나면 病이 內部에 있고, 女子에게 男子의 脈이 나타나면 病이 四肢에 있다. 그러므로 男子에게 女脈이 나타나면 陰氣는 有餘하고 陽氣가 不足하며, 女子에게 男脈이 나타나면 陽氣는 有餘하고 陰氣가 不足한 病證에 屬한다.

脈의 左右에 따라 病의 左右를 決定한다는 것은 病脈이 나타나는 것을 根據로하여 病變의 所在를 把握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寸과 尺 三部에 臟腑를 配合하여 診察하는 方法을 理解할 수 있다.

IV. 結 論

《難經》중에서 脈에 대해 言及하고 있는 第十八難과 第十九難에서의 內容은 《內經》의 脈의 理論을 더욱 深化시켜 繼承說明하고 있다. 그 內容은 아래와 같다.

1. 第十八難은 세가지 問題를 論하고 있는데, 하나는 寸口脈中의 寸關尺 三部脈의 位置에 몸 전체의 上中下 各各의 部位를 配屬하는 脈診法이 있으며, 둘째로 脈에는 三部가 있고 各部에는 四經이 있는데 이는 十二經脈이 屬한 五行相生의 關係에 따른 配分原則에 根據하고 있으며, 셋째로 積聚痼疾의 脈象에 따른 診斷과 意味를 說明하고 있다.

2. 第十九難은 男女가 生理的으로 相異한 脈象을 가지고 있음을 說明하였고, 특히 尺部의 強弱

66) 丁錦, 古本難經闡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22.

"言男女之脈하면 合陰陽之理라 以別弱盛之常道라"

67)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p.58.

"陽之體는 輕清而升하니 天道也라 故로 男脈在 關上이라 陰之體는 重濁而降하니 地道也라 故로 女脈在 關下라"

65) 丹波元胤, 難經疏證, 서울, 一中社, p.962-p.964.

으로 이를 判別하였으며, 아울러 陰陽으로 그 機轉과 理致를 分析하였고 男子에게 女子의 脈이 나타나고, 女子에게 男子의 脈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非正常的인 現象으로 病變의 反影임을 說明하였다.

3. 특히 第十八難에서 三部九候의 診法은 《素問·三部九候論》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上部天은 머리에 있고 中部人은 上肢에 있고 下部地는 下肢에 있다는 內容으로 全身의 診脈法에 該當한다. 本難에서는 寸, 關, 尺, 浮, 中, 沉으로 三部九候라고 했는데 寸關尺 三部의 部位가 人體의 上中下 三部를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다. 이러한 理論은 「獨取寸口診脈法」의 具體的인 內容으로 難經에서 가장 먼저 提示되었고 後世脈學의 發展에 基礎를 마련하였다.

4. 以上에서 論한 第十八難과 第十九難은 現在의 觀點에서 보면 많은 무리가 따르는 分析이나, 一貫된 觀點으로 陰陽의 原則에 따라 臟腑를 配分하고 男女의 異同을 鮮明하게 하였으나, 보다 深度있는 接近이 要請된다 하겠다.

### 參 考 文 獻

1.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成文化社, 1989.
2.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7.
3.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관한 考察, 대전, 대전대학교, 1993.
4.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
5.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6.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館, 1967.
7.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8.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
9.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北, 大孚書局, 1976.
10.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11.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12. 丁錦, 古本難經闡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13.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14. 滕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15. 加藤宗博, 盧經衰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16. 南京中醫學院校釋,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

出版社, 1979.

17. 葉子雨,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8. 丹波元胤, 難經疏證, 서울, 一中社.